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 3년(2025~2027년) 간 2,600억 원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 바뀌
- 2024년, 1년간 컨설팅과 예비사업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 속초시, ▲ 대구 수성구, ▲ 부산 수영구, ▲ 전남 순천시, ▲ 경북 안동시, ▲ 경기 안성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진도군, ▲ 경남 진주시, ▲ 충북 충주시, ▲ 경남 통영시, ▲ 충남 홍성군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지자체명 가나다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권역	신청 도시 수	승인도시	비전·목표
①광역시권	8	대구 수성구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 수성
		부산 수영구	골목에서 바다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연결도시 수영
②경기권	8	경기 안성시	장인문화유통을 통해 삶의 쉼을 실현하는 안성문화장
③충청권	5	세종특별자치시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충북 충주시	글로벌 문화콘텐츠 중심 도시, 충주
		충남 홍성군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
④강원권	2	강원 속초시	영감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문화도시 속초
⑤경상권	10	경북 안동시	전 세계를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으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진주
		경남 통영시	긍정과 변화의 성장문화도시 통영
⑥전라권	8	전남 순천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순천
		전북 전주시	전통한류의 심장 미래문화 창발도시, 전주
		전남 진도군	대한민국 콘텐츠의 세계 도파민 WAVE, 민속문화의 수도 진도
⑦제주권	1	-	-

※ 권역별 지자체 순서는 지자체명 가나다순이며 평가 순위와 무관함

2,600억 원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 바뀌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 (2025~2027년)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 등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 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 기대 : 안동시, 안성시, 진도군, 진주시, 통영시

▲ 안동시는 한국의 유교문화·정신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점과 낙동강문화벨트,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안성시는 안성장, 바우덕이 등 안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경기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를 교류하는 ‘안성문화장’을 표방한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전통 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경남의 문화-관광-경제를 잇는 광역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통영시는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자원을 계승·발전시킨 ‘통영 12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통영,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고 도시 브랜딩을 차별화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② 문화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 : 세종시, 수성구, 순천시, 전주시, 충주시

▲ 세종시는 기존 행정중심 발전전략에 따른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세종을 대표하는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구 수성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허브와 공예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과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정원’으로 도시를 변화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다시 한번 문화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 기대를 모았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로 전환을 계획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창작자(크리에이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충주명작’ 특성화(앵커) 사업이 지방에서도 품격있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역에서도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거점 도시 : 속초시, 수영구, 홍성군

▲속초시는 급속하게 팽창한 관광도시 성장 이면에 문화적 소외를 경험한 지역주민 더 나아가 강원권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특성화(앵커) 사업을 제시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까지 도시 전체에 문화를 입히는 전략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거점도시를 지향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지역(로컬)콘텐츠특구(권역)로 구분해 유기적인 문화도시를 표방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13곳은 지역만의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의 바람이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라며, “문체부는 13개 도시와 함께 내년 1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어,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